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광주·전남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요구 오늘 상경 투쟁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사회적 합의 쟁취와 과로사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광주·전남지역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상경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이미 지난 10일 파업에 들어간 광주·전남지역 택배노동자들은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사는 분류직업을 제대로 책임지고, 택배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임금 노동으로 4~5시간씩 걸리는 분류직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지난 13일 성남에서 한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숨졌다.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택배노동조합원 5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의 92.3%(4901표)로 나타나 총파업

이 가결됐다. 광주에서는 택배노동자 1000여명(추정) 가운데 택배노동조합원인 35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조합원 300여명이 총파업에 찬성(85%)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조합원 200명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우체국노동조합원 170명은 준법투쟁 중이다. 준법투쟁은 대형 간선트럭이 터미널에 신고 온 물품을 구역별로 나누는 분류직업을 사측이 실시하지 않으면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투쟁으로 분류직업을 사측이 하고 있지 않은 우체국은 소속 노동조합원 170명이 총파업 중인 것과 닮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수십년 간 택배산업에서 택배노동자들은 레일 위의 부속품일 뿐이었다며, 사회적 합의 쟁취 투쟁은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한 택배노동자들의 승고한 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택배노동자 과

사방지를 위한 민·관·정 참여의 ‘사회적 합의’ 회의가 열리는 15일 서울로 향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3일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명이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광주지역 택배 배송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광주지역을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택배 배송업체로 지정 중인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노동자 총파업으로 인해 광주시 5개구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현 택배노조 호남지부 국장은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택배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서울 상경투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강제징용자 억울하게 만든 판결”

피해자들, 손배소 각하 항소...일본서도 규탄 성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4일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85명 가운데 75명이 이날 항소했고, 나머지 10명은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자 783만명과 그 가족·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기택씨의 유족은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

소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에 징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1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지지하는 일본 내 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 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묵살하고 서울지법이 내린 이 반동적인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광주 초교 ‘운동부 훈련 없는 날’ 시범운영

연말까지 월곡초 등 6곳

광주지역 초등학교 6개교가 주중 하루 ‘학교 운동부 훈련 없는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월곡초, 하남중앙초, 울곡초, 일동초, 능성초, 성진초 등 6개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중 하루를 훈련하지 않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선수가 주중 훈련과 주말 대회 출전으로 휴식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에는 학생 선수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운동 관련 도서·독후활동 ▲학

생 선수의 꿈 탐색·설계 진로 교육 ▲신체 피로도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돕는 레크리에이션 등이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훈련 없는 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다른 학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관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과장은 “학교 운동부 훈련 없는 날 운영으로 학생 선수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선수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 운동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심뇌혈관질환 예방 ‘스마트 건강교실’ 운영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위험군 120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가 지역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과 무료 건강검진을 통한 개인별 건강상담 및 운동 처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는 14일 “전남대병원 광주전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요인인 고혈압·당뇨병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이상지질혈증(LDL콜레스테롤혈증)을 시민 스스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호남본부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 LDL콜레스테롤 190mg/dl 이상자 120여명을 모집해 대면과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오는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스마트체중계를 지급하고 보건 전문가의 맞춤형 건강상담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안수민 호남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남구 최고의 ‘실버 가수’ 찾아라

28일부터 예선·연말 결선

광주시 남구 최고의 실버 가수를 뽑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남구는 14일 “남구 노인복지관 ‘옴므 호 TV 유튜브 방송국’ 개소에 발맞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피로감 해소와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실버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버 노래자랑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간 예선전을 비롯해 본선, 패자 부활전, 연말 결선전 등 6개월 대장정으로 열린다. 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먼저 예선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펼쳐진다. 각 요일별로 참가자 10

명이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은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예선 결선전(본선) 무대에 오른다. 예선 결선전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선 결선전을 통과한 노래 달인들은 5주에 한번씩 연말 결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오는 7월 29일과 9월 16일·10월 28일·12월 2일에 각각 열리며, 본선 무대마다 참가자 8~12명이 경연을 펼친 뒤 2~4명 가량이 연말 결선 무대에 직행한다. 연말 결선전 빅마치는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협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협 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성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적립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온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9)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곡로 315번길1)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위변로2에)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